

규슈(九州)의 百濟마을



최 원 영

지난 4월 11일, 필자는 오사카에서의 제 60회 일본기생충학회에 참가한 후 官崎醫科大學의 名和교수 초청으로 약 2주간 동의과대학을 방문하였다.

官崎는 규슈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전지역이 관광지로 개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난한 아열대 기후로서 옛날에는 일본인들의 신혼여행지였던 곳이다.

필자는 1988년에 이어 두번째로 이곳을 찾았는데 아직도 산발적이지만 그곳에는 肺吸虫流行地가 남아 있어서 그곳의 폐흡충 유행 양상을 알아 볼 목적이 있었다. 다행히도 그 지방 주민혈청을 입수할 수 있어서 혈청학적으로 많지는 않으나 아직도 폐흡충환자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던 중 그곳의 지방신문에서 官崎 東臼杵郡 南郷村에 백제마을이 개관되어 아직 1년 못되었다는 기사가 있어서 방문하기로 하였다. 기생충학교실의 今井교수가 안내를 하기로 하고 주말을 이용해서 백제마을을 찾았다.

필자는 물론 今井교수도 초행으로 단지 지도를 보고 백제마을이 있는 남향촌을 찾았는데 그곳은 官崎에서 북서쪽으로 깊은 산속에 자리하고 있었다. 우리 두사람은 우선 국도 10호선을 따라서 「日向」을 거쳐 국도 446호를 찾아서 달렸는데 官崎를 출발해서 약 4시간후에나 그곳에 갈 수 있었다.

가는 길은 물론 포장이 잘되어 있었지만 깊은 산골짜기를 끝도 없이 달리는 기분은 그 옛날 이곳을 피난지로 숨어 들던 백제 사람들이 어떤 기분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했다.

남향촌이란 곳은 산속의 작은 마을로서 변변한 건물도 없고 몇개의 여관이 눈에

띄는 정도였다. 국도변에 百濟館이 있었다. 백제관의 모델은 국립부여박물관의 客舍를 본떴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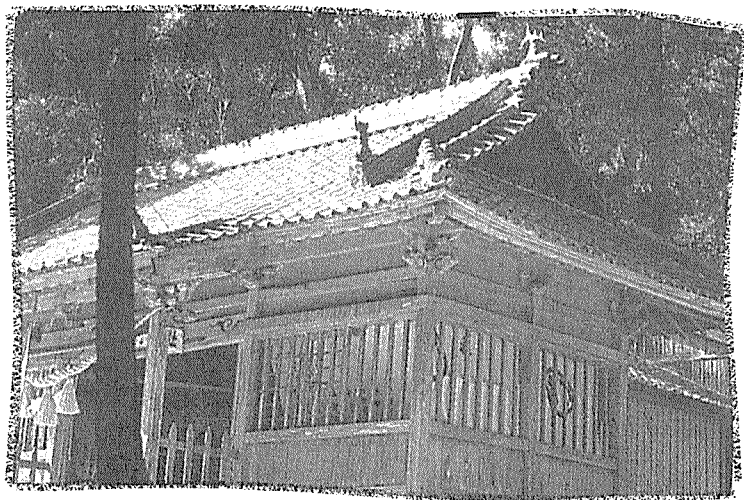
그 옆에는 「연인의 언덕」이 있었는데 이것은 落花岩에 있던 百花亭을 재현하였다고 하였으며 1쌍의 鐘이 부여로부터 기증되었다고 한다.

그 골짜기에 백제마을이 생긴 유래는 서기 660년에 백제가 멸망될 당시, 왕족 일행이 動亂을 피해서 망명한 곳이었다고 한다. 그때에 아버지인 禎嘉王은 남향촌에, 그리고 아들인 福智王은 比木에서 각각 평온한 생활을 한동안 누렸으나 곧 그 소재가 발각되어 추격군을 맞아 싸우다가 전사하였다는 것이다.



일본의 남향촌에 백제마을이 생긴 유래는 서기 660년 백제 멸망 당시 왕족 일행이 망명한 곳이었다고 한다.

당시 남향촌은
미개한
마을이었는데,
의학, 농학,
문화가
발달한
백제사람들이
그곳에
문화를
전했을
것이다.



당시 그곳은 미개한 촌락에 불과하였는데 의학, 농학 및 문화가 발달한 백제사람들이 그곳에 문화를 전했을 것이다.

禎嘉王은 사후에 「神門大明神」으로 그리고 福智王은 「比木大明神」으로 그곳 사람들의 추앙을 받아 왔으며 아직도 이 두 神을 모시는 제사가 천년이상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백제관의 단청은 한국에서 직접 기술자가 그곳에 가서 만들었고 이 기념관에는 여러가지 보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우리가 방문하였을 때는 방문객은 많지 않았으나 어떤 老夫婦가 자기들 자식이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물론 이 백제왕의 망명은 현재는 하나의 전설로서 전해지고 있으나 이 전설이 오늘

날에 이같은 문화유적을 남기도 또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백제마을의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는 것은 의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충남지역의 고등학교교장 약 100여명이 단체로 이곳을 방문한 바가 있어서 환영행사가 크게 있었다고 한다.

규슈지방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또 그중에서도 官崎지방은 관광자원도 풍부한 곳이다. 앞으로 뜻있는 분들은 한번쯤 찾아가 볼만한 곳이라고 생각되었다.

단지 아주 깊은 산골이라 대중교통수단은 불편한 것이 흠이라고 생각되므로 단체가 아니면 현지에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㉞

(필자=가톨릭대 기생충학교수)